

# 대전 방판발 확산, 제2의 리치웨이 되나

### 대전 시작 충남·서울·광주 등 빠르게 퍼져 식당·카페·교회 등서 일반인에 전파 분석

대전시 서구 괴정동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낮 12시 현재 47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 제2의 리치웨이 집단감염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특히 대전 다단계 방문업체 관련 확진자는 대전에서 시작해 충남, 서울, 세종, 경기, 광주, 전북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대전시 서구 괴정동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전일 낮 12시 현재 4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47명 확진자의 발생 지역은 대전 32명, 광주 1명, 전북 2명, 서울 4명, 경기 1명, 세종 2명, 충남 5명이다.

대전에선 전일(20일) 하루 동안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일 발생한 다단계 방문업체

관련 신규 확진자는 △서구 복수동 거주 90대 여성(대전 73번) △서구 용문동 거주 60대 남성(대전 74번) △서구 탄방동 거주 60대 남성(대전 75번) △동구 가양동 거주 40대 여성(대전 76번) △동구 관암동 거주 60대 남성(대전 77번) △유성구 어은동 거주 70대 여성(대전 78번) △유성구 상대동 거주 60대 남성(대전 79번) △서구 거주 50대 여성(대전 80번) △서구 거주 50대 여성(대전 81번) △유성구 거주 70대 남성(대전 82번) 등이다.

특히 세종, 충남, 광주 등 대전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산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50대 남성(광주 32번)이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대전 방문판매 관련 초발 확진자인 대전 4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대 남성(광주광역시 33번)이 확진됐는데, 전주 한 카페에서 전주고교 확진자



대전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1번 확진자가 대전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에티미 사무실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돼 21일 오후 중구 방역 관계자가 해당 사무실을 방역하고 있다.

(전주 9번)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주 9번 여학생은 대전 방문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와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접촉했다.

세종시에서도 50대 여성(세종 49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확진자는 대전 57번이 이용했던 충남 공주시 찜질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 논산에서는 80대 여성(논산 4번)이 대전 방문판매업체 인 오렌지 타운을 방문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대전권 코로나19 환자들이 6월초부터 금주까지 중장년층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설명회·식당·카페·교회·미용실·찜질방 등에서 모임을 통해 지인 및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무면허 10대 마주오던 차 들이받아 4명 중경상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가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4시23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앞 왕복 7차로 도로에서 A군(17)이 몰던 그랜저와 마주 편에서 달리던 B씨(60대)의 쉐타페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이 중상을 입어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았고 그랜저 동승자 2명과 B씨도 부상을 입고 대학병원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랜저에는 A군을 포함해 10대 5명이 타고 있었고, 쉐타페에는 B씨 혼자 있었다.

A군 등이 탄 그랜저 차량은 무리 중 1명의 친척 차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이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랜저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신부 몰던 차 주차장서 5m 아래로 추락

20일 오후 4시50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 지산유원지입구 삼거리 앞 주차장에서 A씨(30·여)가 몰던 K5 차량이 주차장 아래 5m 높이의 모 카페 부지로 떨어졌다.

차는 주차장 옹벽과 카페 건물 사이에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앞범퍼 등이 크게 파손됐다.

차량에는 A씨와 여성 동승자 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도움으로 차에서 탈출했다.

두 사람 모두 외상은 없었으나 임신부인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외국인 노동자 머리 위에서 떨어진 쇠팅이에 중상

20일 오후 2시54분쯤 전남 안도군 금일읍 한 해상에서 선상 작업을 하던 러시아 외국인 노동자 A씨(27)가 위에서 떨어진 쇠팅이에 머리를 다쳤다.

이 사고로 A씨의 머리가 약 10cm 찢어져 목포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에서 작업을 하던 A씨는 위에서 떨어진 쇠팅이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는 인근 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봉합 수술을 위해 소방헬기를 요청, 목포로 이송돼 수술을 마쳤다.

경찰은 A씨를 덮친 추락물의 추락원인과 현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중학생 추행 교정시설 직원 기소 의견 송치

전남의 한 교정시설 직원이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초반 A씨를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중학교 1학년생 B군 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몇일 뒤 다시 이 학교를 찾았다가 B군 등 학생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전남의 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인근 어린이집 비방’ 허위사실 게재 유치원 원장 벌금 300만원

### 1심 700만원 파기 “검사가 일부 범죄사실 철회 등 고려”

상대방 어린이집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벌금 700만

원을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초에 광주의 한 어린이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인근에 어린이집을 홍보하는 댓글이 많이 게시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에 ‘구청에서 운영되지 당한 적이 있던 것 같다’ 등의 댓글을 10차례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에서 공개한 일부 범죄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이에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인근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작성

한 것으로 허위사실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A씨가 여러사람의 아이들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허위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식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전남 장흥서 실종된 언어장애 6세 아이 하루 만에 발견

20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5시30분쯤 장평면에 사는 A군(6)이 집에서 사라졌다. 외출하고 돌아온 부모가 오후 7시1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마을방송으로 A군 실종 사실을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후 1시까지 30여명을 투입해 농로와 수풀을 뒤졌지만 밤이 깊어 A군을 찾지 못했다.

날이 밝자 수색작업이 재개됐다.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휴대전화도 없는 A군을 찾기 위해 전남 지방경찰청 특공대, 소방구조대, 산악구조대, 자율방범대원 등 150여명과 수색견, 드론이 동원됐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하려던 오전 8시10분쯤 A군 집에서 5km 가량 떨어진 이웃마을의 주민 심모씨(40대)가 ‘A군으로 보이는 아이를 찾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남 A군이 실종됐

는 마을방송을 들었던 심씨는 이날 눈길을 하러 나왔다가 눈두렁에 앉아 울고 있던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파출소로 데려가 안정시킨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 또 연락처와 이름을 새긴 금속 목걸이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